



1978

서울주보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허영엽 마티아 신부 | 서울대교구 홍보국장



「홍보에 대한」

「우리의 권리를 찾자」

1978년 5월 7일, 서울주보는 선교 발전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역사적 사명 운운하는 것은 196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대한민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녔던 학생들에게는 익숙한 라임이다.



국민교육헌장 선포식(1968. 12)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굴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1968년 12월 5일 대통령 박정희) 해방 후 대한민국의 교육이 이념, 목적, 철학, 방향이 없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립하여 국회의 만장일치 동의로 제정된 ‘국민교육헌장’이다. 국민교육헌장은 초기부터 일본의 메이지 천황 시대에 제정한 군국주의적, 국수주의적인 교육칙어를 연상하게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집단주의적 가치를 담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417자로 짧지 않은 이 헌장은 딱 하니 모든 학교 교실 앞에 대자보처럼 붙어있었다. 더 황당한 것은 각급 학교에서 모든 학생에게 헌장을 모두 암기할 것을 강요



하기도 하였다. 나도 초등학교 때 국민교육헌장을 암기하지 못하는 친구가 선생님에게 뺨을 맞거나 벌 서는 것을 본 적이 많았다. 일부 학교에서는 국민교육헌장 암송대회를 열기도 했다. 요즘의 젊은이들은 웬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이라 웃어넘기겠지만 정부

공식 법정 기념일로 지내오던 국민교육헌장 선포기념일이 폐지된 것은 2003년이 되어서였다. 1978년에는 실제로 국민교육헌장을 비판한 대학교수 11명이 해직되고 일부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감옥살이를 했다. 1978년 당시 유신독재 시절이어서 계엄선포와 국회해산 및 헌법 정지 등, 비상조치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었다. 당시에 술좌석에서 아무개가 대통령을 비판했다가 귀신도 모르게 중앙정보부가 있던 남산(?)으로 끌려갔다는 등 흥흥한 이야기가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던 시절이다. 그러니 당시의 방송이나 신문 등, 언론 상황은 짐작하고도 남는다. 이쯤에서 각설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면 서울주보는 이처럼 무시무시(?)한 시대 상황에서 태어났다는 것이다.

홍보의 권리를 찾자

서울주보 2면에는 ‘누룩’이란 코너로 칼럼식의 글이 게재되었다. 첫 글의 제목은 ‘홍보의 권리를 찾자’이다. 칼럼은 한마디로 일방적인 홍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과 정확한 정보의 확인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모든 정보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기사 내용 행간에 감추어진 사실과 기사에 드러나지 않은 이해관계나 주변 상황을 파악할 것, 선입견과 특정한 사상체계를 버릴 것, 주어진 정보가 인간의 문화나 정신적 성장에 공헌하는가를 살필 것, 주어진 정보가 가톨릭 신앙에 위배되는지를 살필 것 등 나름대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니 한마디로 당시에 발표되는 모든 언론 내용을 곧이 곧대로 믿지 말라는 것이다. 선전포고 같은 이 칼럼을 당시에 불편해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 짐작한다.